

	<b>보도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 금융</li> <li>• 따뜻한 금융</li> <li>• 튼튼한 금융</li> </ul>
	<b>2.24(수) 14:00부터 보도 가능</b>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최용호 과장(02-2156-9750)	담당자	윤동욱 사무관(02-2156-9671)
배포일	16.2.24.(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0대

**제 목 : 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개시**

- 15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결과
  - (시중은행) 1위 신한은행, 2위 KEB하나은행
  - (지방은행)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
- 16년부터 기술금융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 평가비중 확대
  - 은행 혁신성평가 종료에 따라 기술금융 평가 분리 후 지속 실시
  - 은행별 리그 개편, 평가위원회 구성 등 평가체계 개선
- 올 3월부터 6개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 개시
  -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기업, 산업은행이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 통과

**1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15년 하반기 실적)**

□ '16.2.24.(수), 금융위원회는 '15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평가(제3차) 중 기술금융 실적평가(이하 "TECH 평가") 결과를 발표

**[TECH평가 추진경과]**

- (15년 1월, 제1차 은행 혁신성평가 실시) 기술금융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인을 위해 핵심 평가지표(40%)로 TECH 평가 포함
- (15년 8월, 제2차 은행 혁신성 평가 실시) 기술금융 평가지표 개선 및 16년 실적부터 TECH 평가 분리 실시 발표

- (평가결과) 일반은행 중 신한은행(33.12점/40점 만점)이 '15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 1위를 차지하고 KEB하나은행(27.28점)이 2위를 차지
- 지방은행은 부산은행(35.04점)이 1위, 경남은행(28.40점)이 2위를 차지
- \* (평가지표) 공급규모 30%, 지원내역 30%, 투자실적 10%, 지원역량 30%로 구성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구분		제3차(15.하)	제2차(15.상)	제1차(14.하)
일반은행	1위	신한	국민	신한
	2위	KEB하나	신한	우리
지방은행	1위	부산	부산	부산
	2위	경남	대구	대구

- (분석)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은 해당 리그에서 기술금융 공급규모도 가장 큰 은행이나
-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은 기술금융 규모 대비 신용대출 비중 및 기술금융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를 차지

**【15년 하반기 기술신용대출 규모와 비교】**

구분	기술금융 평가	기술신용대출 규모	
		평가액	잔액
일반은행	1위	신한	신한
	2위	KEB하나	국민
지방은행	1위	부산	부산
	2위	경남	대구

□ (인센티브) 상위 1,2위 은행에는 '16년 상반기 신·기보 출연료를 감면

**【신·기보 출연료 감면 규모】**

구분	일반은행		지방은행	
	1위	2위	1위	2위
은행명	신한	KEB하나	부산	경남
신·기보 출연료	△(A×15%)	△(A×5%)	△(A×7%)	△(A×3%)

\* A = 리그내 평균 출연료

## 2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16년 이후 실적)

### 가. 추진 배경

- '16년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TECH 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TECH 평가에 대한 ①리그 내 은행간 형평성, ②인센티브의 적정성 등 건의사항 제기

- ①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라는 '16년도 기술금융 정책 목적 달성
- ② 은행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기술금융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 나. 개편 방안

1. 기술금융을 통해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 평가 → 확대 / 누적지표 평가 → 축소

- 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기술금융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금융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참여도를 제고

- ① (투자평가 확대) TECH 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적극적인 투자 확대 유도
- ② (초기기업 평가 확대)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하여 지속적인 초기기업 발굴 유도
- ③ (누적평가 축소) 누적평가 비중을 기존 31%에서 15%로 축소하여
  -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해도 평가기간 중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

2.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간 자율경쟁체계를 확립합니다.

(현행) 일반/지방/특수은행 → (개편) 대형/소형/기타은행

- 은행별 기술금융 확대 여건을 고려한 리그 재편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쟁체계 수립\*

\* 시중은행 대비 외국계 은행(씨티, SC), 지방은행 대비 제주은행의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TECH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

- '14.하 및 '15.상 TECH평가 결과 SC·씨티, 제주가 연속 최하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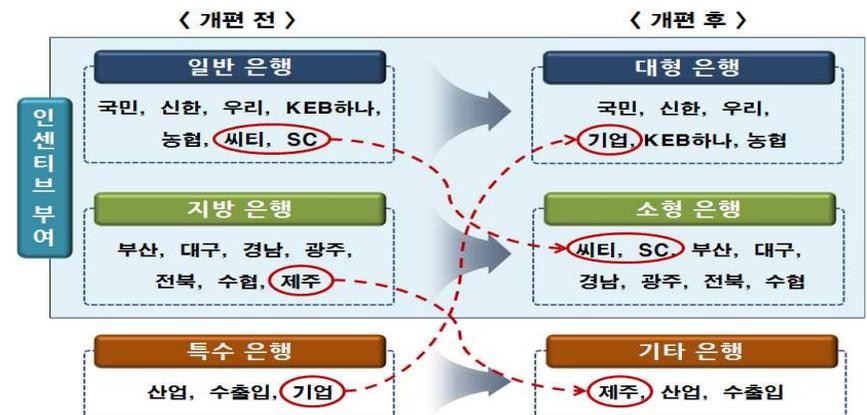
【 중기대출 잔액('15.11월말 기준) 】 (단위 : 조원)

구분	시중은행	외국계 외	외국계	지방은행	제주 외	제주
평균	48.4	66.2	5.5	12.3	14.0	2.1

\*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 씨티, SC  
(지방은행)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①대형은행, ②소형은행,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니거나 곤란한 ③기타은행 리그로 구분

- ① (대형은행)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 ② (소형은행) 6개 지방은행(제주 제외), 외국계 은행(씨티, SC), 수협
- ③ (기타은행)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



### 3.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 ① 온렌딩 한도 차등대상 및 규모 → 리그 전체에 차등 적용
- ② 신·기보 출연료 차등 규모 → 리그 재편성 적용 및 합리화

□ (온렌딩 인센티브 확대) 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한도를 차등 배분(전체 온렌딩 총액의 45% 규모)

\* (기존) 일반은행 상위 1,2위 및 하위 1,2,3위에 대해 기배분한도 증감  
→ (개선)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대해 최초 온렌딩 한도 자체를 차등 배분

□ (신·기보 출연료 인센티브 합리화)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 인센티브 부여

○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총 규모를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하여 일부 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 4.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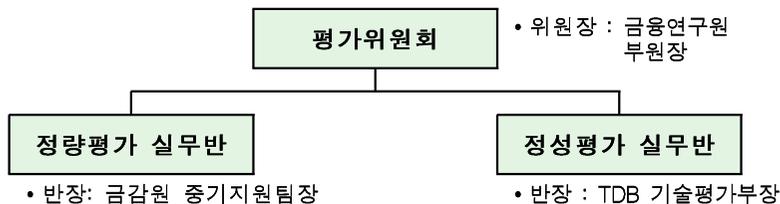
(현행) 금감원-금융연 협업평가 → (개선) TECH 평가위원회 구성

□ TECH 평가 결과를 최종 검증하고 확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위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감원 중기지원팀장, TDB 기술정보부장, 기보 기술평가부장, 금융연·자본연 박사

○ (체계)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의 실무반을 설치

【 TECH 평가 체계 】



### 다. 향후 일정

□ 상반기 중 TECH 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6.8월 중 상반기 TECH 평가 결과 발표

\* 신·기보법 시행규칙, 산은 온렌딩 운영 규정

< TECH 평가 절차 >

	[자료작성]	[자료집계]	[평가]	[확정·발표]	[인센티브]
	은행	금감원	각 실무반	평가위원회	기보·산은 산은
상반기	~12월	~1월 말	2월 중순	2월 말	3월~8월
하반기	~6월	~7월 말	8월 중순	8월 말	9월~2월

### 3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 가. 심사 결과

□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27.)”에 따른 은행 자체 TCB 평가역량을 심사하여

※ (심사단 구성)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심사를 총괄·운영하며, 기술평가기관이 추천한 외부 기술평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Level을 판정

○ 심사신청 6개 은행인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레벨 1」 진입을 승인

【 단계별 실시 요건 】

항목	예비실시	정식실시		전면실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전문인력 수	5명 이상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평가사 수준	70점이상 60%	70점이상 70%	70점이상 80%	80점이상 80%
직전 실시기간	-	6개월	6개월	1년
물적 요건	별도 조직 마련, 자체모형 구축, 전산화 등			

-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3월부터 자체 TCB평가 실시가 가능해지며
  - 향후,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 신용대출이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 \* (레벨2) 직전 반기 TCB대출의 20% → (레벨3) 50% → (레벨4) 제한없음

#### 나. 기대 효과

◆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금년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게 되면
  - '16년 하반기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 \* '16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 약 10조원 중 15% 수준
  - 이르면 '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레벨4)
-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되어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 '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 \* 바젤III에 따라 은행 내부등급법 변경은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 (기술금융 관련 데이터 축적에 필요한 기술신용대출은 '14년 하반기부터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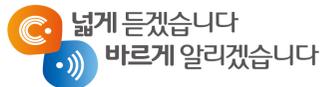
#### 참고 1

#### 기술금융 추진 개요

- (추진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엔젤 및 VC 투자, ②은행 대출, ③자본 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나
    - 국내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②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 은행 대출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 추진
- ⇒ 기업의 재무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마련
  - ※ 기술신용평가 = 기술평가(40%) + 신용평가(60%)
  -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담보없이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공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
- (주요 추진성과)
  - ① '14.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후 '14.6월,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 \* 기술정보DB(Tech Data Base, TDB)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 ② '14.7월,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시
  - ③ '15.1월~8월, 기술금융 실적 평가가 포함된 은행권 혁신성 평가결과 발표
  - ④ '15.4~5월,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실시
  - ⑤ '15.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외연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 ⑥ '15.8월,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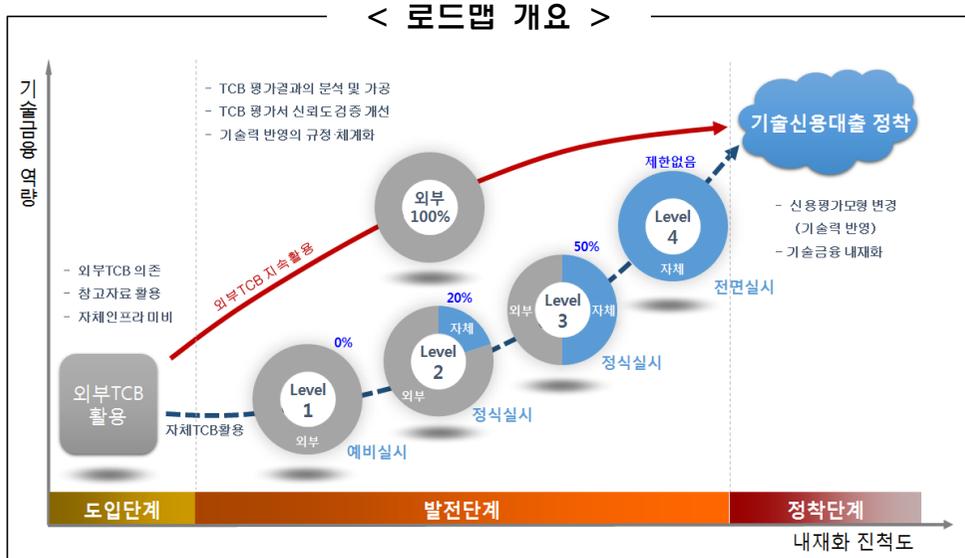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주요 내용**



- (추진목적) 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 (인센티브)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 (레벨2)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 → (레벨3) 50% → (레벨4) 제한없음
  -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3**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추이 및 은행별 규모 (16.1월말 기준)**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 : 33.7조원

구 분	계	'14년 소계	'15년 소계	'15.上	'15.下	'16.1Q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33.7	4.7	27.9	13.1	14.8	1.1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62.5	8.9	51.7	32.9	18.8	1.9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중 신규 및 증액대출을 통해 실제 기업에 자금공급이 증가한 규모(기간연장, 단순대환 등 제외)

□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규모(누적)

(단위: 건, 억원)		건수	잔액	평가액
특수 은행	기업	26,689	154,295	82,235
	산업	1,325	17,122	7,615
	수출입	82	1,379	5,955
	농협	4,996	25,882	18,763
	수협	169	2,093	1,114
시중 은행	국민	20,617	92,588	47,919
	신한	23,015	111,052	59,242
	우리	16,434	81,288	46,510
	KEB하나	12,882	77,764	39,751
	씨티	513	3,808	2,825
	SC	349	2,949	1,203
지방 은행	경남	2,004	11,917	6,880
	광주	823	3,441	2,159
	대구	3,202	17,487	9,598
	부산	3,397	21,141	10,262
	전북	175	355	114
	제주	93	372	289
<b>합 계</b>		<b>116,765</b>	<b>62.5조원</b>	<b>33.7조원</b>